

한국에서의 ‘백남준’ 연구 경향

오 혜 진

I. 들어가는 말

吳惠珍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대만 국립타이난대학
예술창작이론연구소 박사반
문학박사 수료
동아시아미술사

백남준(白南準, 1932~2006)은 1932년 한국에서 태어나 1950년대 초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에서 작곡을 기반으로 미학을 전공했으며, 1956년 독일로 음악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간 이후 그곳에서 전위적 성격의 유럽 및 미국의 동시대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전자음악 등을 접하게 되면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기존의 예술장르 간의 경계를 해체시키는 인터미디어(Intermedia)적인 시도를 지속했으며 동시에 텔레비전과 그 관련 송수신 기술, 음성 녹음 기술, 비디오 편집 및 이미지 합성 기술, 전자공학, 기계공학, 위성기술, 물리학 및 정보이론 등을 끌어와 오히려 예술 전체의 경계를 넓히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간 인물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혁신적인 방식의 예술 활동을 통해 미술사 전반에서 여러 업적을 쌓아왔기에 백남준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B유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90388).

** 필자의 최근 논저: 「동아시아 전통 회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소고」, 『미술사논단』53, 2021. 12; 「〈生〉之符號: 韓國戰爭時期聯合國軍對中共軍的傳單」, 『藝術觀點ACT』83, 國立台南藝術大學, 2020. 10.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인 예술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대표성에 비해 백남준이 어떤 예술가라고 정의 내리고자 할 때 명확한 이론적 성격으로 그를 규정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경우 비디오, TV, 전자음악 등 그가 주로 사용했던 매체나 재료로 그를 단순히 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백남준의 총체예술적이며 간학제적 성향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가 평생에 걸쳐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를 나타내는 경계를 짓기가 어려운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백남준의 미술사, 더 넓게는 인문학 및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에서의 백남준 연구 경향을 시대별로 살펴보려한다. 어디까지나 큰 맥락을 간략하게 잡아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백남준에 관한 모든 연구를 포괄하지 않았으며 연구사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할지라도 언급되지 않은 연구성과도 존재한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국내 연구자로 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국외로 유학한 국내 연구자도 포함되었다. 백남준을 주제로 한 연구일지라도 그의 예술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응용적 성격의 연구물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II. 1980년대: 휘트니 뮤지엄 백남준 회고전 이후

국내에서 백남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계기는 1982년 미국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Nam June Paik*》 전으로 생각된다. 미국 내에서 백남준의 전반적인 예술 활동을 되돌아보는 회고전적인 성격의 전시로 그 이전에 1974년 뉴욕 에버슨 미술관의 《백남준 비디오 '앤' 비디올로지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전이 있었으나, 미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열린 첫 번째 전시라는 면에서 휘트니 미술관의 전시는 의미가 남달랐으며, 연구사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 전시도록이 출간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¹²

1 John G. Hanhardt, *Nam June Paik*,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2).

2 에버슨 미술관에서의 전시에서도 도록이 발간 되었으나, 여러 가지 글과 기록들을 모은 자료집의 성격이 강했으며, 휘트니 미술관 전시가 열리기 이전에 1977년 독일 쾰른 미술협회 미술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의 *Nam June Paik: Werke 1946-1976: Musik-Fluxus-Video* 전 1979년 프랑스 파리현대미술관의 *Nam June Paik Rétrospective* 전 등 유럽에서의 백남준 회고전이 있었다. 전자는 도록이 제

도록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백남준의 연대기를 특정 시기별로 풍부한 시각적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있으며, 이어서 미술사가 디터 룬테(Dieter Ronte)가 쓴 「빈 현대미술관 소장 백남준 초기 작품들 *Nam June Paik's Early Works in Vienna*」, 작곡가 마이클 나이먼(Michael Nyman)의 「작곡가 백남준 *Nam June Paik, Composer*」,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존 핸하트(John G. Hanhardt)의 「백남준의 비디오 조각 *Paik's Video Sculpture*」, 데이빗 로스(David A. Ross)의 「백남준의 비디오테이프 *Nam June Paik's Videotapes*」 등의 논고가 실려 있다. 미술사, 혹은 예술사의 영역에서 백남준을 분석한 이 글들은 향후 백남준 연구에서 어느 정도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³

이러한 흐름을 국내 학계에 가장 먼저 따랐다고 생각되는 것은 1984년에 발표된 계명대학교 회화학 전공의 논문인 최병소의 「白南準 研究 -퍼포먼스와 비디오 아트를 中心으로-」이다. 이 논문은 백남준을 주제로 다룬 국내 첫 석사학위 논문으로 논문에 사용된 도판의 대부분이 휘트니 미술관의 1982년 도록과 일치한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휘트니 미술관의 관점의 영향을 받아, 백남준의 예술을 크게 퍼포먼스, 비디오테이프, 비디오조각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을 자세히 소개한다. 그 외도 같은 해인 1984년 일본 도쿄도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전: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ナムジュン・パイク展: ヴィデオ・アートを中心に)〉나 1980년대 초 일본의 미술잡지 『예술신조(藝術新湖)』, 『미술수첩(美術手帖)』 등에서 다뤄진 백남준에 관한 동시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 백남준의 관한 학술적 연구 선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병소의 논문은 당시 미국 및 일본에서 백남준을 분석하고 있는 방식을 수용하고 그들이 백남준의 예술을 어떤 맥락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최병소의 석사학위 논문 이후로 몇 년간 백남준만을 주제로 한 학술적 연구가 1980년대에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백남준이 1950년대 초 출국 이후 1980년대에 처음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대중매체에서 활발히 다루어진 사실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 시기 국내 학술 논문 가운

작되었으나, 후자는 발간되지 않았다.

- 3 휘트니미술관의 도록에서 백남준의 연대기는 유년기서부터 독일 중심 활동기(1932-64), 초기 미국 퍼포먼스 활동기(1964-68), TV를 활용한 퍼포먼스 시기(1969-76), 비디오 조각 시기(1979-82) 등의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도판 외에도 선별된 퍼포먼스, 전시, 비디오테이프, 글, 참고자료 등의 목록이 수록되어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데 백남준을 소개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는 김정자의 「새로운 Media 소고」이다.⁴ 1985년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발행의 학술지 『조형(造形)』에 실린 이 논문은 당시에 시각예술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떠오르는 표현 기법이나 개념, 또는 매체 여섯 가지를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비디오 매체를 대표하는 작가로 백남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도판 역시 모두 휘트니 미술관의 도록과 일치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당시 국내 백남준 연구에서 해당 출판물이 가졌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백남준 연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이 시기에 국외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매우 의미 있는 초창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외를 통틀어 백남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박사학위 논문인 강태희의 「백남준: 초기 연구(1958-1973) *Nam June Paik: Early Years (1958-1973)*」가 있다.⁵ 1988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발표된 이 논문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백남준의 독일 활동에서부터 1970년대 초 미국 활동 까지를 연구범위로 삼는다. 강태희는 이 기간을 4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백남준의 주요 활동과 함께 시대적 맥락, 이론적 토대를 상세히 분석한다. 첫 번째 시기는 플럭서스 활동 이전인 1958년에서 1960년까지로 독일 유학 이후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존 케이지(John Cage) 등에게 백남준이 받은 영향, 즉 그의 예술의 근간이 어떤 맥락에서 발전 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장에서 다섯 번째 장까지는 플럭서스 활동기, 미국 초기 실험적 비디오 아트 활동기,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기반이 서게 된 1970년대 초를 각각 해당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핵심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론을 함께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강태희는 키치나 차용, 재 활용, 관람객의 고관여성, 빠르고 불연속적인 시간의 분절이라는 백남준 예술의 특징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며, 그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가로 정의했다. 이 논문은 당시까지 백남준에 관련된 서구권, 특히 북미의 자료들을 총망라한 중요한 연구 결과물인 동시에 휘트니 미술관의 도록처럼 백남준을 비디오 조각가로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주를 이루는 시기에 그 이전 단계로 범위를 한정시키며 비디오 영상 자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해인 1989년에는 김홍희가 캐나다 콘코디아 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

4 김정자, 「새로운 Media 소고」, 『조형 FORM』8 (1985), pp.17-63.

5 Taehi Kang, "Nam June Paik: Early Years (1958-1973)" (Florida State Univ. Ph.D., 1988).

위 논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해프닝의 연장으로서 참여 TV-포스트모던의 실천-*Nam June Paik's Video Art: Participation-TV as an Extension of Happening -A Postmodern Practice-*」을 발표한다.⁶ 이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에서 백남준을 주제로 쓴 첫 석사학위 논문에 해당되며,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발표된 백남준 관련 석사논문 중 이른 시기의 것이었다.⁷ 김홍희는 해프닝의 참여성을 백남준 예술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보고 1960년 초부터 논문이 나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작품에서 드러났는가를 상세히 살펴본다. 특히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에서 참여-TV가 그의 해프닝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강태희와 유사하게 김홍희 역시 백남준을 후기구조주의의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후 한국어로 번역되어 1992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는데 이후 국내 연구에 많은 영향을 남긴 백남준에 관한 국내 초기의 연구서가 된다.

III. 1990년대-2000년대

: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비디오매·비디오땅〉 전 이후

1992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내 최초의 백남준 회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남준 · 비디오매 · 비디오땅〉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1991년부터 유럽의 4개 미술관, 즉 스위스 바젤 현대미술관, 취리히 현대미술관,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현대미술관, 오스트리아 빈 20세기 미술관 등을 순회한 〈백남준: 비디오 시간-비디오 공간 *Nam June Paik: Video Time - Video Space*〉와 연관되어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의 단독 기획 전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간된 도록 또한 상당수 같은 도판을 싣고 있으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⁸ 가장 다른 것은 게재된 논고들인데, 헨하트나 로스, 볼프 헤르조겐라트(Wulf Herzogenrath) 등 중복되는 필진이 있으나 대부분 새

6 Kim-Cheon, Hong Hee, "Nam June Paik's video art: participation-TV as an extension of happening: a postmodern" (Concordia Univ. M.A., 1989).

7 이에 앞선 북미에서의 석사학위 논문 사례로는 Marianne Doezema, "The video work of Nam June Paik, 1965-1975" (Univ. of Michigan, 1976); Mary Ann Kearns, "The role of technology in the art of Nam June Paik" (Virginia Commonwealth Univ. M.A., 1988) 등이 있다.

8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 · 비디오매 · 비디오땅』 (국립현대미술관, 1992). 영문판 도록은 Toni Stoos and Thomas Kellein, *NAM JUNE PAIK: Video Time-Video Space*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3).

로운 글이 실렸으며, 더 중요한 것은 앞장에서 다룬 강태희, 김홍희 등 국내 연구자의 참여가 눈에 띈다.⁹

국립현대미술관의 회고전을 앞두고 비슷한 시기에 이후 국내 백남준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두 출판물이 발간된다. 첫 번째는 김홍희의 『백남준과 그의 예술: 해프닝과 비디오 아트』(디자인하우스, 1992)로, 앞서 언급한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연구서이다. 백남준을 주제로 삼은 미술사 분야의 해외 연구논문이 한 국어로 번역되어 일반 도서로 출판된 첫 번째 사례로서 백남준 연구의 기초자료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출판된 또 다른 백남준 관련 서적으로는 이 용우의 『백남준』(삼성출판사, 1992)이 있다. 백남준의 성장과정에서부터 예술의 변화과정 및 원류까지를 전반적으로 다루며 컬러 도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도록 형태의 대형 책으로 학술적인 분석과 전기(傳記)적 서술이 융합되어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작품 분석에서는 1988년 독일에서 출판된 에디스 테커(Edith Decker)의 『백 - 비디오 Paik - Video』와 유사한 목차 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백남준의 행적을 매우 상세하게 탐사하듯 기술하고 있어서 이전의 일반적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는 기록 들도 포함된다.¹⁰ 이용우의 책은 특히 향후 백남준을 작가론적으로 접근하는 국내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빈번히 인용된다.

최병소의 석사학위 논문 이후로 한동안 이어지지 않았던 백남준을 주제로 한 학술적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회고전이 열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¹¹ 1992년부터 2009년 사이 미술대학이나 인문학 분야에서 백남준의 예술을 주제로 한 석사 논문은 약 23 편이 발표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많은 경우 논문에 주제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제가 중복되는 만큼 연구 대상인 백남준의 작품과 예술활동에 대한 분석은 앞선 연구 성과들과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테크놀로지, 오브제, 커뮤니케이션, 사이버아트

9 유준상은 「백남준의 黃禍論」, 이용우는 「백남준과 한국미」, 김홍희는 「백남준의 비디오, 비디오 이상, 비디오 이념」, 강태희는 「지고촌의 커뮤니케이션 안테나」가 도록에 실렸다.

10 Edith Decker, *Paik - Video* (Köln: DuMont Buchverlag, 1988). 이후 1998년 영문 번역본이, 2001년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11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회고전뿐만 아니라 백남준이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독일관 대표로 참가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이어서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설립, 제1회 광주 비엔날레 개최 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등 한국 미술계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의 개념을 소개하는 동시에 접목시켜 작품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에는 비디오 아트를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을 드러내는 사이버 매체로 맥락화한 김미경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있어서의 매체에 대한 연구」나 비디오 아트에서 나타나는 미학적 특성에 대해 깊게 파고든 노영선의 「현대미술에 도입된 비디오 아트의 미학적 고찰」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장시키는 데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흥미로운 연구들도 있었다.¹²

표 1 1992년에서 2009년 사이 국내에서 발표된 백남준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들¹³

저자 및 제목	연도	대학	전공
김민아, 「백남준 비디오아트 연구: 오브제(object)의 특성에 관하여」	1994	영남대	서양화
김현지, 「白南準의 비디오 아트」	1995	상명여대	서양화
김태성, 「백남준 論: 비디오조각을 중심으로」	1996	중앙대	조소
김미경,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있어서의 매체에 대한 연구」	1996	홍익대	예술
신정호, 「백남준의 Video Art에 관한 연구」	1999	단국대	서양화
장유호, 「백남준 Video art 에 대한 연구 : 참여예술에 나타난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2000	홍익대	회화
노영선, 「현대미술에 도입된 비디오 아트의 미학적 고찰」	2001	상명대	서양화
박용식, 「백남준의 작품세계」	2001	홍익대	조각
현대섭, 「백남준의 Video Art에 관한 연구」	2002	동아대	미술
백종기, 「백남준 作品의 테크놀로지 媒體 擴散에 關한 研究」	2002	경상대	미술
최창희, 「동영상 구성에 있어서 인터랙티비티와 하이퍼텍스트의 문제 : 백남준의 〈Good Morning Mr. Orwell〉을 중심으로」	2003	홍익대	예술
박종혁, 「비디오 아트(Video Art)에 관한 研究 : 白南準의 비디오 아트를 中心으로」	2003	한남대	조형미술
이근용, 「플럭서스의 활동과 특성에 대한 연구 : 플럭서스를 통해 본 백남준 연구를 포함하여」	2003	홍익대	미술사
박상영, 「비디오 예술의 '시간성'과 '소통'에 관하여 : 백남준 비디오 예술을 중심으로」	2003	경원대	서양화
김대현,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대한 연구」	2004	조선대	순수미술
김하얀, 「시각 예술에서 동영상 이미지의 유동성과 지각의 문제 : 백남준의 〈TV 왕관〉과 매튜 바니의 〈Cremaster 1〉을 중심으로」	2004	홍익대	예술
김경실, 「해체주의로 본 백남준 작품 연구」	2007	군산대	조각
양창섭, 「미디어작품의 복제와 보존에 대한 연구 : 백남준의 미디어 작품을 중심으로」	2007	경기대	조각

12 김미경,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있어서의 매체에 대한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노영선, 「현대미술에 도입된 비디오 아트의 미학적 고찰」(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 해당 시기에 미술교육 분야에서도 백남준을 주제로 한 석사논문이 다량 발표되었으나, 교육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수연, 「백남준의 퍼포먼스 연구 : 매체의 변화와 감각의 확장을 중심으로」	2007	서울대	미술사
김영순, 「백남준 작품에 나타난 동양성 연구」	2008	전남대	미술
손형우, 「미디어와 예술의 결합현상의 사례로서 백남준 비디오아트의 매체적 특성 연구」	2008	경희대	디지털영상
나경신, 「백남준의 〈다다익선〉 연구」	2009	성신여대	미술사
김성국, 「미디어 작품의 노후화로 인한 보존대책에 대한 연구 :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9	단국대	미술관 · 박물관 경영

2000년대에 중반에 들어서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던 연구 동향이 학위 논문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다양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인 2002년 3월에는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의 주최로 백남준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심포지엄 〈MAC 2002: 백남준과 미디어아트 - 인문학으로 바라보기〉이 개최되는데, 이미 여기서 아방가르드, 사뎀니즘, 인터랙티브, 일상적 오브제 등 다양한 주제어들이 등장해 백남준에 관한 새로운 담론들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⁴

특히 이근용의 「플렉서스의 활동과 특성에 대한 연구: 플렉서스를 통해 본 백남준 연구를 포함하여」는 국내 미술사 분야에서 백남준을 주제로 한 첫 석사학위 논문으로 플렉서스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전개, 그리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백남준을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이해하려 했다.¹⁵ 또한 2006년 백남준이 타계한 이후로 김성국의 「미디어 작품의 노후화로 인한 보존대책에 대한 연구: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와 같이 백남준 작품의 특성에 따른 보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병소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1984년 이래로 20여 년간 백남준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해외로 유학한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으나 국내에서 쓰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08년에 들어서 흥미롭게도 동시기에 2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각각 서양화 전공과 예술문화 영상매체 협동과정 영역에서 발표된다. 하이브리디제이션(Hybridization)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중심으로 백남준을 리히터(Gerhard Richter)와 비교한 이광수의 「하이브리디제이션의 樣式的 特性에 關한 研究-백남준과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중심으로」와 색채를 중심으로 백남준의 비디오

14 「MAC 2002: 백남준과 미디어아트 - 인문학으로 바라보기」,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 <http://yonseiima.cafe24.com/?p=594> (2024. 3. 5 검색).

15 이근용, 「플렉서스의 활동과 특성에 대한 연구: 플렉서스를 통해 본 백남준 연구를 포함하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아트 콘텐츠를 분석한 조향의 「소통의 색채로 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기억과 자연의 재구성」이 해당 논문들이다.¹⁶

한편 이에 앞서 국외에서는 1997년에 이지호가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 대학교에서 「마르셀 뒤샹과 백남준의 예술작품으로서의 일상적 오브제 *L'objet banal en tant qu'oeuvre d'art chez Marcel Duchamp et Nam June Paik*」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¹⁷ 해당 논문은 뒤샹의 레디메이드 작품과 백남준의 텔레비전 이 예술가의 선택을 통해 예술의 지위를 얻게 되는 평범한 오브제로 보고 이러한 개념의 발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에 두 작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범 미술 분야 학위 논문들이 주로 비디오 아트에 전념하고 있던 1990년대 초부터 시각예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학문 분야에서는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백남준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이른 시기의 예로는 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통해 백남준을 전기적으로 분석한 이정호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문법: -백남준의 예술을 중심으로-」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새로운 영상 기술로 받아들인 유현목의 「영상예술의 새로운地平」 등이 있다.¹⁸ 이정호와 유사하게 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백남준을 연구한 또 다른 예로 2007년 정윤희의 「“하이퍼텍스트성”과 백남준의 미디어아트: 디지털 미학의 선구적 형태로서 백남준의 비디오예술」이 있다.¹⁹ 이 논문은 작품으로부터 추출되는 특징들을 근거로 디지털 미학의 맥락에 백남준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백남준의 작품에서 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도로 백남준을 이해하는 방법론의 범위를 넓혀주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음악 역시 백남준의 예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음악학에서도 그를 다루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그중 주목해 볼 만한 학술 논문으로는 2002년에 발표

16 이광수, 「하이브리데이전의 樣式的 特性에 關한 研究: 백남준과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중심으로」(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향, 「소통의 색채로 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기억과 자연의 재구성」(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7 이 논문을 바탕으로 심화시킨 내용이 각주 14번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18 이정호, 「포스트모더니즘의 문법: -백남준의 예술을 중심으로-」, 『人文論叢』28 (1992), pp.65-79; 유현목, 「영상예술의 새로운地平」, 『교수아카데미총서』9:1 (1995), pp.314-323.

19 정윤희, 「“하이퍼텍스트성”과 백남준의 미디어아트: 디지털 미학의 선구적 형태로서 백남준의 비디오예술」, 『독일어문학』36 (2007), pp.111-132.

된 최유리의 「디지털 매체에 의한 사운드와 이미지」가 있다.²⁰ 최유리의 논문은 역사적으로 영상과 소리가 디지털화된 과정을 예술사의 맥락에서 음악과 시각예술이 만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의 흐름은 이후 백남준을 음악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와 상당히 일치하며, 특히 플럭서스와 비디오아트에서는 직접적으로 백남준을 언급하며 맥락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한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술사 내에서도 다면적인 방식으로 백남준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김영나의 경우 「초국적 정체성 만들기: 백남준과 이우환」에서 국내보다는 국외가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던 두 작가의 행보를 전기적으로 탐구해 그로부터 디아스포라적인 공통점을 이끌어 낸다.²¹ 이렇게 두 작가를 비교 분석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론은 미술사 내 백남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비슷한 시기 김은지의 「수용과 갈등: 백남준 비디오 테이프와 독일 미술관」은 백남준 연구에서 매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²² 이 논문은 백남준의 전반적인 예술 활동에서 비디오 조각의 위상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로 유럽 미술관에 소장된 백남준의 작품 대부분이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인 것을 전제로, 그 배경에는 유럽 미술관 내에서 우세했던 담론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미술관의 수용 정책 및 담론이 기여하는 정도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IV. 백남준 아트센터의 학술 활동들

2008년 개관한 이래 백남준 아트센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백남준에 관한 담론들을 이끌어 왔다. 그 중심에는 2009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는 학술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시리즈와 학술지 『NJP 리더』, 그리고 수많은 개별 출판물들이 있다.

〈백남준의 선물〉 시리즈의 경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주제 하에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제 5회인 2012년부터는 동기관의 학술지 『NJP 리더』를 통해 그 내용이 널리 배포되었다. 2010년을 전

20 최유리, 「디지털 매체에 의한 사운드와 이미지」, 『하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2 (2002), pp.1-21.

21 김영나, 「초국적 정체성 만들기: 백남준과 이우환」, 『한국근현대미술사학』18 (2007), pp209-226.

22 Eunji Kim, *Nam June Paik: Videokunst in Museen* (Reimer: Dietrich, 2009).

후로 국내에의 백남준 연구가 1990년대 초와 같은 일률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 여러 갈래로 발산하는 데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2024년 초 까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모든 <백남준의 선물> 심포지엄과 출판된 『NJP 리더』의 모든 호의 주제를 함께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진행/발행한 심포지엄과 학술지 목록

연도	구분	회차/호	주제
2009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	관점이동과 시간성
2009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2	고르디아스의 매듭 다시 묶기
2009	학술지	NJP 리더 #1	예술인류학에의 기고
2010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3	뉴미디어의 고고학
2011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4	텔레비전, 달라-, 서로-, 너머-
2011	학술지	NJP 리더 #2	애플로지의 사유
2012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5	인간과 기계, 삶을 이중주하다
2012	학술지	NJP 리더 #3	사이버네틱쿠스
2013	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6	1963 음악의 전시, 다시 올림
2013	학술지	NJP 리더 #4	음악의 전시
2014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7/ NJP 리더 #5	백-오웰 클럽: 와레즈 아카데미
2016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8/ NJP 리더 #6	NJP를 다시 움직이기: 백남준의 인터페이스들
2017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9/ NJP 리더 #7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2018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10/ NJP 리더 #8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
2019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11/ NJP 리더 #9	미디어 생태계: 다시 TV 정원으로
2020/ 2021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12/ NJP 리더 #10	미술관 없는 사회, 어디에나 있는 미술관
2021/ 2022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13/ NJP 리더 #11	비디오 디지털 공유지
2022/ 2023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14/ NJP 리더 #12	우정을 연주하다: 요나스 메카스와 백남준
2023/ 2024	심포지엄/ 학술지	백남준의 선물 15/ NJP리더#13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두 세기에 걸친 여정

또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전시 도록 외에도 백남준이 남긴 각종 텍스트, 서신집, 관련인물들의 인터뷰 등 백남준 연구에서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지속적으로 출판해 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료의 제공을 넘어 백남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료의 가치, 신빙성, 품질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며 백남준 연구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백남준 아트센터의 모든 활동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으나, 최근까지의 연구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으로서 국내 백남준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V.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경향들

2010년대에 들어서서 백남준의 연구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발산적인 양상을 보인다. 백남준의 총체예술은 일반적인 예술 장르간의 통합을 넘어 다양한 영역의 첨단 기술과도 결합되었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관심에 따라 주제와 관점이 천차만별로 갈리며, 연구자가 발을 딛고 있는 학제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시대로부터 계승된 관점을 심화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전혀 새로운 연구 대상과 관점을 제시하거나, 재매개, 미디어고고학 등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 또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시기에 발표된 주목 받을 만한 연구 성과들 중 몇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우선 2012년에는 임산의 『청년 백남준: 초기 예술의 융합 미학』이 발간되었다.²³ 이는 저자가 영국 랭커스터 대학에서 2010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인터미디어 예술과 사이버네틱의 시선: 독일에서의 백남준 *Intermedial Art and Cybernetic Vision: Nam June Paik in Germany, 1956-63*」을 심화시킨 연구서로 유럽, 특히 독일에 남아있는 백남준 관련 기록물과 각종 자료들을 수집·정리해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백남준의 독일 시기부터 시작된 예술관을 융합적 사유 실험,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복합성의 건축, 실험텔레비전, 피드백의 미학 등의 개념용어로 정리해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²⁴ 1988년 강태희의 박사학위 논문이 북미에 흩어져있던 백남준 관련 자료들을 수합했던 것처럼, 이 연구서는 이전에 주목받지 못하거나 인지되지 않았던 유럽 전역의 백남준과 관련된 사료들까지 모음으로써 백남준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생각된다.

제3장에서 언급했던 음악사의 관점에서 백남준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경은의 두 논문 「음악의 시각화: 쇤베르크의 후예들과 공감각」(2015), 「이미지 합성기와 악기 사이」(2016)는 미술사학과 음악사를 융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논문 모두 저자의 미국 럿거스 대학교 미술사전공 박사학위 논문인 「백남준의 예술에서의 음악성과 시간성 *Musicality and Temporality in the Art of Nam June Paik*」을 심화발전 시킨것으로, 논문은 공감각의 상태를 달성, 또는

23 임산, 『청년, 백남준 초기 예술의 융합 미학』 (서울: 마로니에북스, 2012).

24 Shan Lim, "Intermedial art and cybernetic vision: Nam June Paik in Germany, 1956-63" (Univ. of Lancaster, Ph.D., 2010).

모방하기 위해 음악을 시각화하는 예술적 실험의 계보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⁵ 오경은은 기존의 시각 예술의 계보를 따르는 대신, 특히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의 영향 아래 특정 주제, 즉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보를 구축했다. 이는 백남준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 그와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법이다. 두 번째 논문은 같은 맥락 속에서 백남준이 만든 비디오 신디사이저에 주목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한편 신원정은 자신이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논문 「백남준의 독일 초기 작품들에서의 음악, 액션, 그리고 시각예술 *Musik, Aktion und bildende Kunst zum Frühwerk von Nam June Paik in Deutschland*」을 기반으로 2015년에 「“루돌프 아우크슈타인에게 경의를”: 백남준의 부퍼탈 전시에 드러난 정치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²⁶ 여기서 저자는 백남준이 냉전 시대의 한국인이었음을 강조하며 독일에서의 첫 개인전에서 전시된 전단지의 문구 등에 함의되어 있는 작품 석 정치적 이슈들을 지적한다.

당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또 다른 시도로 김희영의 「백남준의 전자 TV: 통제된 시간에 대한 저항」을 들 수 있다.²⁷ 저자는 방송국에서 일제히 송출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왜곡시키는 행위에서 백남준의 초기 실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형태나 미리 정해진 생각에 대한 예술적이면서도 사회정치적인 저항을 읽어낸다. 나아가 ‘불확정적 시간성’의 개념으로 관심을 돌려 백남준의 예술에서 그 의미를 재고해 작가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수영은 박사학위 논문 「백남준의 초기 아날로그 미디어 작업에 대한 미디어 고고학적 연구」에서 구식화된 기계장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인 미디어 고고학을 적용해 백남준의 작품이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²⁸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국내 연구성과들 중 백남준 작품의 실제 기술적인 원리를 가장 깊게 분석하고 있다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25 Gyung Eun Oh, “Musicality and temporality in the art of Nam June Paik(1932-2006)” (Rutgers Univ. Ph.D., 2014)

26 Won Jung Shin, “Musik, Aktion und bildende Kunst zum Frühwerk von Nam June Paik in Deutschland”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Ph.D., 2015); 신원정, 「“루돌프 아우크슈타인에게 경의를”: 백남준의 부퍼탈 전시에 드러난 정치성」, 『현대미술사연구』38(2015), pp.87-112.

27 김희영, 「백남준의 전자 TV: 통제된 시간에 대한 저항」, 『현대미술학 논문집』23:1(2019), pp.63-83.

28 이수영, 「백남준의 초기 아날로그 미디어 작업에 대한 미디어 고고학적 연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VI. 나가는 글

지난 2022년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국내에서는 각종 전시 및 학술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술적인 의의를 남긴 주목할 만한 행사 중 하나로 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나의 백남준〉이 있었다.²⁹ 남겨진 자료와 작품의 관리, 기술적인 이해와 복원, 여러 방향으로 확산하는 다양한 담론 등 이 심포지엄이 다룬 문제들이 펼쳐진 범위를 한발자국 떨어져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단일 작가를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보기에는 인지하고 관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압도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 백남준의 관한 학술 연구는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회고전을 계기로 첫 걸음을 시작했으며 북미나 서구권으로 유학한 연구자에 의해 주로 수행되다가,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연구 성과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초기에는 고정된 시각 이 약간의 변주와 함께 반복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남준의 여러 면모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남준 아트센터가 설립되어 기관을 중심으로 고정적인 학술 행사와 간행물이 생산되며 이를 원동력 삼아 연구 시장의 규모가 성장했다. 이후 백남준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남긴 커다란 우주에서 각자 앞에 놓인 땅을 원하는 대로 일구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발산적인 현상은 단선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다양한 채널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백남준의 예술적 도전을 고려했을 때 더욱 긍정적인 면이 돋보인다. 다만 이 지점에서 백남준이 1993년 『샘터』지의 「나의 꿈」이라는 코너에 남긴 글을 돌아보게 된다.

미술사에 남고 싶다. 젊은 시절엔 고향땅을 밟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다. 그냥 돌아가 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내가 ‘행위음악’을 할 때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시절이었고, ‘비디오아트’를 창안했을 때 그건 솔직히 일종의 도박 이었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인정해줄 것인가? ... 나는 계속 활동할 생 각이 다 그래서 세계 미술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게 나의 원대한 꿈이다.³⁰

29 국립현대미술관, 『나의 백남준: 기억, 보존, 확산』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23).

30 백남준, 「나의 꿈: 미술사에 남고 싶다」, 『샘터』24:10 (1993), p.21.

문제는 어딘가에 지속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백남준이 단순히 미술사에서 비디오 조각, 비디오테이프, TV, 인공위성 등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설명되기에는 그보다 훨씬 깊이 있고 광활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규정지을지가 현 시점에서는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로서 백남준의 예술적 근원을 쫓는다면 현재 발산된 결과물들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Keywords

백남준 Nam June Paik 연구사 research history 휘트니미술관 Whitney Museum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백남준아트센터 Nam June Paik Art Ceter

투고일 2024년 3월 29일 | 심사일 2024년 4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16일

논저

- 김희영 Kim, Hee-young, 「백남준의 전자 TV: 통제된 시간에 대한 저항 Nam June Paik's Electronic Television: Resistance to the Controlled Time」, 『현대미술학 논문집 *Journal of Contemporary Art Studies*』23:1, 2019. 6, pp.63-83.
- 이수영 Lee, Soo Young, 「백남준의 초기 아날로그 미디어 작업에 대한 미디어 고고학적 연구 A Media Archaeological Approach to the Early Analog Media Technologies of Nam June Paik」,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Ph.D., 2021.
- 이용우 Lee, Yongwoo, 『백남준 *Name Jun Paik*』 서울: 삼성출판사 Seoul: Samseong Publishing Co., 1992

- Kang, Taehi, “Nam June Paik: Early Years (1958-1973),” Ph.D.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1988.
- Kim-Cheon, Hong Hee, “Nam June Paik’s video art: participation-TV as an extension of happening: a postmodern,” M.A. Thesis., Concordia University, 1989.
- Lim, Shan, “Intermedial art and cybernetic vision: Nam June Paik in Germany, 1956-63,” Ph.D. diss., Lancaster University, 2010.
- Oh, Gyung Eun, “Musicality and temporality in the art of Nam June Paik (1932-2006),” Ph.D. diss., Rutgers University, 2014.

도록

- 국립현대미술관 MMCA, 『나의 백남준: 기억, 보존, 확산 *My Paik Nam June: Memories, Conversation, And The Spread Of Discourse*』,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Seoul: MMCA, 2023.
- 국립현대미술관 MMCA, 『백남준 · 비디오때 · 비디오땅 *Nam June Paik · Video Time · Video Space*』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Seoul: MMCA, 1992.
- John G. Hanhardt, *Nam June Paik*,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2.
- Toni Stoos and Thomas Kellein, *NAMJUNE PAIK: Video Time-Video Space*,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3.

Trends in Research on Nam June Paik in South Korea

Oh, Heyjin

Nam June Paik (1932-2006) was born in Korea, studied aesthet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and then went to Germany to further his education. It was there that he began his artistic career in earnest. Later,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continued to expand the boundaries of art through his intermedia work, utilizing various media such as TV, electronic music, and video art. Although Paik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Korean artists globally, defining his art precisely is challenging.

This paper examines how research on Nam June Paik has developed in Korea since the 1980s. Research on Paik began domestically following his retrospective at the Whitney Museum in 1982, initially led by researchers who had studied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he 1992 retrospectiv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sparked an explosive increase in domestic research output. Early studies tended to reproduce fixed perspectives, but over time, attempts to highlight various aspects of Paik's work began to emerge. The establishment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led to regular academic events and publications, driving growth in the research field.

Thus, research on Nam June Paik has evolved from simply reproducing existing views to exploring his multifaceted artistic nature. Various academic approaches have been attempted to capture Paik's avant-garde and interdisciplinary art world, and these efforts continue to this day.

